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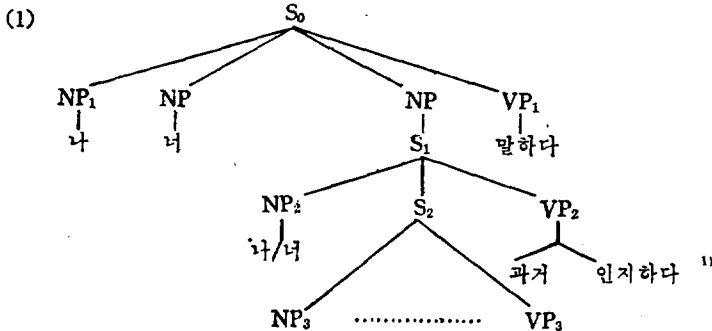
# ‘더’의 意味에 대한 管見

柳 東 碩\*

## 1. 序

本稿는 現代國語의 終結法 및 引用法에 나타나는 先語末語尾 ‘더’에 대한 意味分析과 ‘더’의 쓰임에서 생겨나는 意味上的 制約現象을 合理的으로 記述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變形·生成文法理論에 힘입어 국어의 統辭構造에 대한 理解가 깊어지면서 ‘더’가 統合된 文章의 統辭構造에 대해서도 淸澈한 理解가 이루어졌다. ‘더’의 意味가 무엇이든 ‘더’가 統合된 文章의 統辭構造는 대략 다음과 같다는 데에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Chnag(1973), Sohn(1975), 김영희 (1981))



지금까지의 ‘더’의 意味에 대한 記述은 주로 VP1에 대한 것이었다. 곧 ‘回想’을 주장하는 文法家들은 VP1을 ‘회상한다’로, ‘보고’를 주장하는 文法家들은 VP1을 ‘보고 한다’로 각각 기술하고, VP2에 대해서는 回想

\* 國語國文學科 四學年

1) ‘인지하다’는 Sohn(1975)에서의 ‘Perceive’나 김영희(1981)에서의 ‘지각하’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論者나 報告論者 共히 知覺動詞 및 過去로만 記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記述로서는 ‘더’가 統合된 文章과 ‘았’이 統合된 文章 사이의 뚜렷한 구별이 되어질 수 없으며 더우기 ‘더’가 統合될 때 생겨나는 制約現象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해 주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檢討·批判은 2章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VP<sub>1</sub>에 대해서는 3章에서, VP<sub>2</sub>에 대해서는 4章에서 각각 論議될 것이며, 5章에서는 全論議를 要約하는 것으로 本稿를 끝맺게 될 것이다.

## 2. 종래의 견해들에 대한 批判

### 2.1. ‘더’와 回想

비록 그것이 時制範疇냐(나진석(1971), 김차균(1980)) 叙法範疇냐(南基心(1972), 高永根(1974))하는 範疇上의 차이는 있어도, ‘더’가 回想의 意味를 지닌다는 것은 최현배(1937) 이래 많은 文法家들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더’의 意味가 回想이라는 견해는 대체로 토박이 화자로서 가질 수 있는 直觀에 근거하고 있는 듯하다. 즉 ‘았’이 統合된 文章에서보다도 ‘더’가 統合된 文章에서 ‘過去の 經驗事實을 더 생생하게 그러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에 回想의 意味를 부여한다(김차균, 1980:84)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直觀의 느낌만으로는 ‘더’가 쓰인 文章을 回想文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가지 問題點에 대해 合理的으로 說明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이다.

첫째, VP<sub>2</sub>가 過去로 표시되는 것 중에서 表面構造가 ‘더’로 實現되는 것과 ‘았’ 혹은 ‘았았’으로 實現되는 것 사이의 구별에 대해 ‘回想’이라는 意味는 有效한가?

둘째, 종래에 소위 ‘비동일주어 제약’(non-equi-subject constraint)이라고 불리운 制約現象에 대해 ‘回想’의 意味가 說明力을 가질 수 있는

가?

우선 첫번째 물음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話者가 어떤 事實에 대해 發話하고자 할 때, 그 發話의 命題의 內容이 發話時 以前에 일어난 事件이고, 또 그것을 認知한 것도 發話時 以前이라고 한다면, 話者는 ‘더’ 또는 ‘았’을 統合시켜 發話할 수가 있다.

- (2) 철수는 학교에 가더라.
- (3) 철수는 학교에 갔어.

가령, ‘철수가 학교 가’는 事件과 그 사실을 認知한 것이 모두 發話時 以前의 일이라고 한다면 話者는 (2)나 (3)처럼 말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문제는 (3)을 發話할 때의 話者는 ‘철수가 학교가’는 사건 혹은 그 사건을 認知한 事實을 회상하지 않고 發話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그러한 可能性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 좋은 증거로 忘覺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過去에 認知한 事實을 잊어버렸다면은 그 事實에 대한 發話는 불가능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回想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過去에 認知한 事實을 發話할 때 ‘더’가 統合되건, ‘았’이 統合되건 回想作用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더’가 統合된 文章의 意味記述은 回想 外의 다른 것으로 되어져야 한다. 이 점은 다음의 例文을 비교해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 (4) 그는 그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었지.
- (5) 그는 그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더(라., 군., 만., …)

만약 話者가 전우의 죽음을 回想하는 發話를 한다고 하면 (5)보다는 아무래도 (4)가 더 자연스러운 發話가 될 것이다. (5)가 特定한 語脈의 前提없이 쓰인다면, 發話者는 그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고, 局外者의 입장에서 ‘그’의 전사 장면을 관찰했으며, 그것을 별다른 감정 없이 사실 그대로 전달한다는 태도일 것이다. (3章 참조). 이처럼 (4)와 (5)는 話者의 마음 속에 回想의 作用이 일어나는 것은 공통되지만, 그

것을 認知할 때의 태도와 回想하여 傳達할 때의 태도에서 둘은 차이가 난다. 따라서 ‘더’가 쓰인 文章이 비록 回想의 意味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더’에 대한 特徵的 意味記述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두번째의 물음인 制約現象에 대한 ‘回想’意味의 說明力을 살펴 보자.

- (6) a. \*나는 그 술집에 자주 가더라.  
b. 나는 그 술집에 자주 가게 되더라.

(6a)는 종래에 ‘비동일주어 제약’으로 취급되던 것이다. 이런 종류의 制約에 대해 回想이라는 意味資質로서는 아무런 說明도 해 줄 수가 없다. ‘자기의 동작은 비교적 눈에 덜 띄기’ 때문이라는 說明(나진석, 1971:27)으로는 (6a)와 (6b)의 차이를 說明해 주지 못한다. 制約解消가 된 (6b)에 대한 타당한 說明을 해 주지 못하는 한 ‘回想은 선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라는 反論(서정수, 1977:118)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2.2. ‘더’와 ‘보고’

‘더’에 回想의 意味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비판하고 나온 것이 Sohn(1975)와 서정수(1977)에서의 ‘보고’이다. 특히 後者에서는 ‘더’가 사용되는 話用論的 狀況과 ‘더’의 쓰임에서 생겨나는 制約을 分析하여 ‘보고’만이 ‘더’의 유일한 意味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정수(1977)에서 ‘보고’의 意味를 주장하기 위하여 내세운 ‘deixis적 制約’과 ‘몸소살핌 제약’ 등에 대해서는 이미 김차균(1980)에서 批判이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서는 再論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실제로 言語行爲로서의 ‘보고’와 ‘더’가 쓰인 文章사이의 乖離에 대해서만 지적하기로 하겠다.

우선 機能上의 問題를 들 수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고’는 보다 公的이고 形式的(formal)인 言語行爲로 情報的 機能(informational fun-

ction)이 필수적이다. 반면에 ‘더’가 統合된 文章이나 發話는 보다 私的인 言語行爲로서 전혀 情報的 機能을 갖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다만 親交的 機能(phatic function)만 갖는 경우도 있다.

- (7) a. 사장님, 밖에 손님 오셨습니다.
- b. 사장님, 밖에 손님 오셨읍니다.

만약, 비서가 사장에게 비서실에 손님이 와 있음을 보고하는 경우라면 (7b)보다는 아무래도 (7a)를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다른 방문객이 위의 사실을 사장에게 지나가는 말로 슬쩍 말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7b)를 發話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7b)는 ‘사장님 무척 바쁘신 모양이군요’ 정도의 인사말로서 단순히 親交的 機能만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고’는 認知現場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더’는 반드시 現場밖에서 發話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4.1 참조)

- (8) 중대장님! ○○초소 보고! ××M 전방에 적 △명 출현! (a. 했읍니다/  
      b. \*했읍니다.)

例文(8)은 전형적인 보고 형식일 것인데, 認知現場에서 바로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런 경우 ‘더’가 統合될 수 없음은 괄호속에 보충한 말의 統合關係를 살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밖에도 用語上의 問題가 하나 더 있다. 이는 주로 서정수(1977)에서의 ‘보고법’에 관한 것인데, ‘보고’는 話者が 聽者에게 갖는 태도이므로, 우리 국어에 ‘보고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文體法에 속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어에서의 文體法, 곧 平敘法, 疑問法, 命令法 등은 모두 語末語尾에 의해 구별되므로 ‘보고법’도 당연히 語末語尾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sup>2)</sup>

2) ‘더라’에 보고의 意味가 있다면 ‘라’에 있을 것이라는 김차균(1980:87)에

## 2.3. ‘더’와 ‘과거’

중래에 주장된 ‘더’의 意味로는 ‘回想’, ‘보고’뿐만 아니라 ‘過去’를 나타낸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더’와 過去를 관련시키는 데는 크게 두가지 다른 태도가 있어 왔다. 하나는 事件時와 發話時의 關係로 파악한 것이고(나진석 1971, ‘지난적 나아감’), 다른 하나는 認知時와 發話時와의 關係를 나타낸다는 것이다.(Sohn, 1975). 우리는 원칙적으로 後者의 견해를 따를 것이나, 그것을 ‘非現場性’이라는 用語로 나타낼 것이다.(4.1 참조)

우선 ‘더’가 時制要素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견해로서 나진석(1971)의 ‘지난적 나아감’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나진석(1971:25)에 의하면 <눈이 오더라>는 <눈이 오고 있더라>와 同意語로서 ‘지난적 나아감’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分析은 다음과 같은 (9a)의 예문에는 적용이 되질 않는다.

(9) a. 기차는 한 시간 후에 출발하더라.<sup>3)</sup>

b. \*기차는 한 시간 후에 출발하고 있더라.

(9a)와 같이 아직 實現되지 않은 事件에도 ‘더’가 統合되는 것은 ‘더’가 事件時와는 무관하고 다만 認知時만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Sohn, 1975; 89) 즉 認知가 過去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事件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더라도 ‘더’의 統合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특히 往來發着의 動詞일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0) 그는 미국 가더라.

(11) 그는 미국 갔더라.

서의 論議는 示唆하는 바 크다.

- 3) 본고를 발표할 당시 (9a)에 대해서는 全光鏞 교수님으로부터 非文法的인 文章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었고, 그밖의 몇몇 분들도 같은 지적을 해주셨다. 그러나 대체로 筆者와 같은 世代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이러한 사실은 ‘더’의 意味에 대한 通時的 考察의 한 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發話時를 基準으로 했을 때 위의 (10)과 (11)은 時制의 차이가 뚜렷하지 못하다. 이것은 (10)을 어느 특정한 時로 絞집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10)' a. (며칠 전에 공항에서 보니까 그날) 그는 미국 가더라.  
 b.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오늘) 그는 미국 가더라.  
 c.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내일) 그는 미국 가더라.  
 (11)'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그 전날) 그는 미국 갔더라.

위의 (10)'는 (10)이 發話時를 기준으로 하면 過去, 現在, 未來 중,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방점친 부분 참조) 그러나 괄호 속에 보충한 말 중 時間副詞語들을 잘 비교해 보면 發話時 基準의 時制體系와는 또 다른 時制體系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0)'에서는 認知時를 나타내는 <며칠 전에>를 基準時로 하면 事件時를 나타내는 ‘그날’, ‘오늘’, ‘내일’은 모두 非過去(non-past)가 되고, (11)'에서는 ‘며칠 전에’를 基準으로 ‘그 전날’은 過去가 됨을 알 수 있다<sup>4)</sup>. 이러한 관계는 狀態動詞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12) 영화는 예쁘더라.  
 (13) 영화는 예뻤더라.

話者が ‘영화의 美’에 대해 판단한 때(認知時)를 기준으로 (12)는 非過去가 되고 (13)은 過去가 된다. 또 ‘겠’이 統合될 때도 이것은 변함없이 적용된다.

- (14) 그는 미국 가겠더라.  
 (15) 그는 미국 갔겠더라.

(14)와 (15)에서는 推測한 때가 바로 認知時가 되겠는데, 이 推測時

4) ‘더’가 쓰인 文章에서의 時制는 三分法的인 과거 : 현재 : 미래의 대립으로 파악하는 것 보다 二分法, 특히 과거 : 비과거의 대립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有用할 듯하다. 二分法에 대한 여러 견해의 다양한 소개는 Lyons(1977)의 15.4 및 17.3 참조.

를 기준으로 (14)는 非過去가 되고 (15)는 過去가 된다.

이상의 (10)~(15)의 例文으로 論議한 ‘더’와 時間關係를 要約하면 다음의 (16)처럼 나타낼 수 있다.

- (16) a. 기준시점 : (Ts→)Tp  
 b. -ϕ(겠)더- :  $Te \geq Tp$  and  $Tp < Ts$   
 c. -았(겠)더- :  $Te < Tp < Ts$

(Ts: 發話時, Tp: 認知時, Te: 事件時를 나타내며, →는 基準時點의 移動을, ‘ $Ti \leq Tj$ ’는  $Ti$ 가  $Tj$ 보다 앞 선 때이거나 같은 때임을 표시함)

위의 (16a)는 ‘더’가 쓰인 文章에서의 가장 현저한 특징 중의 하나인데 이는 최현배(1977)에서의 ‘도로생각 때매김’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16b)와 (16c)에서 ‘ $Tp < Ts$ ’의 관계가 成立됨을 알 수 있는데, ‘더’에서의 過去라는 것은 바로 이 관계 때문에 생겨 난다고 할 수 있다. 또 (16)의 時制體系에 의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例文의 非文法性을 지적할 수가 있다.

(17) \*충무공은 한산섬에서 진을 치더라.

종래에 (17)과 같은 例文의 非文法性에 대해서, ‘더’의 쓰임은 체험적 사실에만 국한된다(나진석, 1971:26~27)든가 ‘직접 경험법’(허웅, 1975), ‘몸소 살림 제약’(서정수, 1977) 등과 같은 制約條件을 내세워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話者가 어떤 사실을 발화할 때, 그 發話의 命題의 內容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體驗했을 때만 發話가 가능하므로 ‘體驗’, ‘經驗’, ‘살림’과 같은 用語로는 ‘더’가 쓰인 文章만의 특징을 記述하기에는 적절하지가 못하다. 만약 위의 用語들이 ‘더’만의 意味實質이라고 한다면, (17)에서 ‘더’를 삭제한 다음의 (17)’는 자연스러워야 할 것이다.

(17)’ \*충무공은 한산섬에 진을 친다.

그러나, (17)’는 여전히 자연스럽지 못한 發話로 남아 있다. (17)’의



비문법성은 우리는 '體驗' 등의 用語를 빌지 않고서도 설명할 수 있다. (17)'는 情報의 內容上 過去時制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 現在時制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17)도 (17)'와 마찬가지로 설명되어야 한다. (17)를 發話하는 사람이 (17)의 사실을 認知했을 때는 (17)은 이미 과거의 事件이었을 것이므로 마땅히 (17)은 (16c)의 時制로 표현되어야 할 것인데, (16b)의 時制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文章이 되는 것이다.

#### 2.4. '비동일주어 제약' 批判

종래에 '더'를 記述할 때 人稱과 관련시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Ramstedt, 1939:70) 그러다가 점차 국어의 統辭構造에 대한 理解가 깊어지면서 그것이 主語의 개념으로 바뀌어, '비동일주어 제약'(non-equi-subject constraint) (Yang (1972), Chang (1973))과 '동일주어 제약'(Equi-subject constraint) (Yang, 1972)이 '더'가 쓰인 文章에서의 制約現象으로 설정되게 되었다. 이들 중 '동일주어 제약' 現象은 주로 主觀性動詞文章 및 被動文章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더'에 의해서라기 보다 그들 動詞의 語彙的 特性에 의한 것이므로(Chang, 1973: 52) 일단 論外로 하고, 여기서는 주로 '비동일주어 제약'이 과연 '더'가 統合된 文章에서 有效한 制約인가에 대해서만 살펴 보겠다.

우선 '비동일주어 제약'을 보인다는 다음의 例文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18) a. \*나는 그 술집에 자주 가더라.

- 5) 서정수(1977)에서는 '논리적 주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동일주어 제약'은 '비동일주어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筆者는 本稿의 校正 단계에서 김영희(1981)을 보게 되었는데, 김영희(1981)에서는 '더'가 쓰인 文章에서, 人稱制約 現象이 有用하다는 가정 아래 '지시관계'와 '참여자 서술 조건'으로 '비동일 주어 제약' 및 '동일 주어 제약'을 각각 記述하고 있다. 김영희(1981)에서의 '참여자'의 개념은 종래에 '주어'로 설명하던 것 보다는 확실히 進一步한 것이며, '더'의 制約 現象을 意味論上의 制約으로 說明할 수 있는 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b. \*너는 그 술집에 자주 가더냐?  
 c. \*철수는 자기가 그 술집에 자주 가더라고 말했다.  
 (19) a. \*나는 예쁘더라.  
 b. \*너는 예쁘더냐?  
 c. \*영희는 자기가 예쁘더라고 했다.

위의 例文들이 非文法的인 것은 上位文의 主語(話者, 疑問法에서는 聽者)와 內包文의 主語가 서로 同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說明은 ‘더’가 쓰인 文章들의 表面的 現象에 대해서는 잘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살펴 보면 우리는 (18)과 (19)는 서로 함께 묶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선 (18)과 (19)는 制約解消方法에서 차이가 난다. 곧 (18)은 履行主語의 意圖(volition)만 제거해 주면 制約이 解消된다(3.2 참조). 반면에 (19)는 認知時가 분명해지면 制約이 해소된다(4.2 참조).

(18a)’ 나는 그 술집에 자주 가게 되더라.

(19a)’ 나는 순희보다 더 예쁘더라.

(18a)’는 被動文章으로, 履行主語의 意圖가 자인히 排除되어 制約이 解消되었고, (19a)’는 比較文章이므로 ‘자기가 예쁘다’는 사실을 알게 된 時點이 比較時가 되어, 分명한 認知時點을 갖게 되어 制約解消가 일어 났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18)의 現象은 履行主語의 意圖때 문에 일어난 사실임을 알 수 있으며, (19)는 履行主語의 意圖가 아닌 다른 要因, 곧 認知時點의 不明確性에서 생겨나는 制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8)과 (19)를 함께 묶어 설명할 수가 없으며, 또 그 制約도 意味에 의해서 생겨나므로, 人稱과 관련시키는 것은 그 근거를 잃게 된다.

### 3. VP<sub>1</sub>의 意味特性

#### 3.1. 客觀的 傳達

앞장에서 우리는 ‘더’에 대한 종래의 견해들의 問題點을 살펴 보았다

대기서 우리가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더’의 쓰임에서 생겨나는 制約現象을 合理的으로 說明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論議는 자연히 制約現象을 說明해 낼 수 있는 ‘더’의 意味를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 論議의 출발점을 (16a)의 ‘Ts→Tp’ 現象에서 찾을 것이다. 최현배(1977:445)에 의하면 ‘더’가 쓰인 文章은 ‘말하는 그 때점’을 基準時로 삼지 않고 ‘지난적에 그 일을 겪던 때점’을 基準時點으로 삼는다고 한다. 이는 ‘더’가 쓰인 文章에서의 基準時點의 移動 現象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우리식으로 나타내면 ‘Ts→Tp’로 표시할 수 있다(2.3 참조).

‘Ts→Tp’는 ‘더’가 쓰인 文章의 가장 현저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직접적으로는 VP<sub>1</sub>의 意味特性을 규정지어 준다. 곧, 話者が 자신이 認知한 사실을 認知한 그 時點으로 되돌아가서 말해준다는 것은 認知時와 發話時 사이에 있을 수 있는 話者の 主觀的인 판단이나 해석을 排除하게 되어, 처음 認知한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意味를 갖게 한다. 다음의 例文으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하자.

- (20) a. 철수가 가라고 해서 영화는 집에 갔다. /\*가더라.  
 b. 철수가 가라고 하나까 영화는 집에 가더라. /?갔다.

위의 (20)은 다음의 (21)에 대한 대답(answer) 또는 반응(response)으로 想定해 볼 수 있다.

- (21) 영화가 왜 집에 갔니?

위의 물음에 대해 (20a)로 發話했을 때와 (20b)로 발화했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우리는 (20a)는 (21)의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지만 (20b)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21)은 영화가 집에 간 이유(혹은 원인)를 묻고 있고, (20a)는 그 이유를 철수의 意圖(volition) 때문이라고 話者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어 물음과 대답의 관계가 적절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20b)는 철수가 가라고 한 사

진과 영희가 간 사건 사이의 因果關係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해 주지 않고, 다만 認知時點에서 그 事件을 관찰한 先後關係에 대해서만 그대로 묘사하여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20b)는 (21)에 대한 반응일 뿐이고, 적절한 대답은 될 수 없다.<sup>6)</sup> 이것은 (20b)에 ‘몰라’를 삽입하여도 자연스럽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Lyons, 1977; 762-763)

(20b) ‘몰라, 칠수가 가라고 하니깐 영희는 집에 가더라.

즉, (20b)’를 發話하는 話者의 태도는 영희가 집에 간 理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事件의 先後는 어리러리하다는 것을 본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태도이다. 이상에서의 (20)에 대한 우리의 장황한 설명은 ‘본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표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Ts→Tp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곧 VP<sub>1</sub>의 意味特性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客觀的 傳達’<sup>7)</sup>이라는 말로 나타낼 것이다.

VP<sub>1</sub>에 대해 客觀的 傳達를 부여한 우리의 直觀은 다음 (22)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는 미묘한 意味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 준다.

- (22) a. 삼촌, 아버지께서 기. 편찮으십니다./ㄴ. ?편찮으십니다.  
b. 아버지, 삼촌이 기. 편찮으십니다./ㄴ. 편찮으십니다.

만약 (22a)의 話者의 신분이 世俗을 벗어난 승려나 수도자가 아니라

- 6) 만약 (21)이 다음과 같이 질문되었다면 (20b)도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1) ‘영희가 왜 가더냐?’ 이때 (20b)는 영희가 간 理由로 해석되는데, 基準時點인 認知時는 영희가 간 事件時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고, 理由를 판단한 時가 基準時가 될 것이다.  
7) 종래에 ‘더’의 意味를 論할 때, 어떠한 형태로든 客觀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Sohn(1975:93)에서 ‘extremely objectivized’, 서정수(1977)에서는 다소 표현은 다르지만 ‘분리된 자기’라는 말을 Sohn과 같은 意味로 사용하고 있고, 성낙수(1975)에서는 ‘객관적 관찰’이라는 말이 보인다. 그러나 이 客觀에 대해서 가장 確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은 高永根(1965:65)에서의 記述이다. 高永根(1965)에 의하면 ‘더’는 ‘사실을 사실대로, 곧 객관적 태도로 파악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면 (22a)의 ㄴ을 발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日常의 사람이 ㄴ처럼 발화한다면, 聽者인 삼촌으로부터 “꼭 남의 말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구나” 정도의 핀잔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버지’가 聽者가 되고 ‘삼촌’이 主語의 자리에 놓인 (22b)에서는 ㄱ과 ㄴ 둘다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이러한 (22a)와 (22b) 사이의 차이점은 客觀的 傳達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곧, 우리의 言語慣習은 話者 자신의 不幸, 또는 話者와 親한 쪽의 不幸을 보다 疎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客觀化시켜 전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22a)에서와 같은 現象이 일어난다. 이것은 (22b)에서 聽者를 삼촌보다 더 疎한 ‘아저씨’를 놓게 되면 (22a)와 꼭 같은 現象이 일어난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22b) ? 아저씨, 삼촌이 편찮으십니다.

또, 다음과 같은 例文도 같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23) a. 어제 우리집에 불이 났다. /?났더라.

b. 어제 이웃집에 불이 났다. /났더라.

그러나, 어떤 사태나 사건이 話者에게 多幸에 속할 때는 앞서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24) 내 동생이 일등했다. /일등했더라.

例文 (24)가 친구들에게 동생이 일등한 사실을 자랑하는 경우라면 ‘친구’와 ‘동생’은 話者에게 있어서 親疎關係가 成立될 수 있지만, ‘더’의 統攝이 부자연스럽지가 않다. 이것은 (24)가 話者에는 多幸에 속하는 ‘동생의 일등’을 자랑하는 경우이므로, 客觀化시키면 시킬수록 ‘자랑’이라는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의 수행이 용이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 3.2. 무의도(non-volition)

앞에서 客觀的 傳達이 Ts→Tp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보았으며,

이러한 客觀的 傳達이 일어날 수 없는 文章에 대해서도 일부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客觀化가 일어날 수 없는 보다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無意圖라는 ‘더’의 意味單位를 찾아 보겠다.

대체로 우리가 客觀化시킬 수 없는 文章은 認知時에 話者(履行主語)의 意圖(volition)가 작용하고 있는 사건이거나 사태를 나타내는 文章들이다. 主로 同一主語 文章들이 이에 속한다.

(25) \*나는 학교에 가더라.

話者와 主語가 일치하는 경우 대체로 話者의 意圖가 쉽게 개제될 수 있음은 自明한 이치다. 위의 (25)에서 ‘내가 학교가’는 사건 속에는 반드시 話者의 意圖가 介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話者의 意圖가 介在된 文章은 ‘더’의 結合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同一主語 文章이더라도 명백히 話者의 意圖와 無關함이 드러나 있는 사건을 나타낼 경우 ‘더’의 結合은 쉽게 이루어 진다.

(26) 나는 영희네 학교에 자주 가게 되더라.

(26)에서 ‘나’가 ‘영희네 학교에 자주 가는 것’은 話者가 원해서일 경우도 있겠으나, (26)을 발화하는 話者의 心理는 자기의 意思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영희네 학교에 자주 간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굳이 能動文章으로 표현하지 않고 被動文章으로 나타낸 것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7) (철수와 함께 가는 줄 알았는데, 한참후에 보니) 나는 혼자서 학교에 가고 있더라.

(27)에서 ‘혼자서 학교에 가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은 話者의 意圖 때문이 아님은 토박이 화자라면 누구에게나 자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다음의 (28)과 비교해 보면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28) \*나는 (혼자 학교 가는 것이 좋아서) 혼자서 학교에 가더라./가고 있더라.

곧 (27)과 (28)의 괄호 속의 말을 서로 비교해 보면 (27)은 話者의 意圖와는 무관한 사건이고 (28)은 話者의 意圖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29) ?나는 어제 학교에 갔더라.

認知時에 완료된 사건은 認知 당시의 話者의 意圖에 의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의 (29)가 다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25)와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認知時의 不分明性(2.4 및 4.2 참조)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狀態動詞나 敘述格助詞가 결합된 文章에서 볼 수 있는 制約과 같다.

'더'가 話者의 意圖에 의해 지배되는 事件이나 事態를 나타내는 文章에는 統合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더'에 無意圖(non-volition)라는 意和資質을 부여해 볼 수가 있다. 이것은 '겠'이 통합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잘 알려져 있는 대로 '겠'은 推測, 能力, 意圖 등을 나타내는데(南基心, 1978:23) 편의에 따라 앞의 둘을 '겠', 意圖를 나타내는 것을 '겠'라 하면 <내가 죽겠다>와 같은 文章은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다.

(30) 내가 죽[겠<sup>1</sup>, 겿<sup>2</sup>]다.

곧, <내가 죽겠다>에서의 '겠'은 推測도 될 수 있고 話者의 意圖도 나타낼 수가 있어 重意의이다. 그러나 (30)에 '더'가 統合되면 이러한 重意性은 解消된다.

(30)' 내가 죽[겠<sup>1</sup>, \*겿<sup>2</sup>]더라.

곧 (30)'에서의 '겿'은 항상 推測으로만 해석되고, 意圖로는 해석이

되질 않는다. 이것은 話者의 고집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樣態副詞와 結合될 때 더욱 분명해진다.

(31) \*나는 기어코 일등하겠더라.

(31)에서의 ‘겠’은 話者의 意圖를 나타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디’의 결합은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설명은 종래에 形態論的 制約이라고 했던 다음의 現象들도 意味論上의 制約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 준다.

- (32) a. \*학교에 가더십시오. (命令法)  
 b. \*학교에 가더자. (共同法)  
 c. \*학교에 가더렴. (許諾法)  
 d. \*학교에 보내 주더마. (約束法)

즉, 위의 (32)의 命令法, 共同法, 許諾法, 約束法 등은 話者의 意圖가 강하게 內包되어 있는 文章이므로 無意圖의 意味를 지니는 ‘디’의 結合이 불가능해진다.<sup>8)</sup>

## 4. VP<sub>2</sub>의 意味特性

### 4.1. 非現場性(there or then)<sup>9)</sup>

우리는 앞장에서 VP<sub>1</sub>의 意味特性을 客觀的 傳達로 기술하고, 그러한 記述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Ts→Tp’를 들었다. 그리고 ‘디’의 쓰임에서 생겨나는 일부 制約이 客觀化를 방해하는 話者의 意圖 때문인 것도 이야기했다. 이제 여기서는 VP<sub>2</sub>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VP<sub>2</sub>에 대해 종래의 記述은 ‘知覺動詞+과거’라는 정도였다.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이

8) (32)의 例文들에 대해 Sohn (1975)에서는 認知的 過去性 때문에 생겨나는 制約으로 보고 있다.

9) Ramstedt (1939:70)에서도 같은 記述이 보인다.



러한 견해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좀더 특징적으로 記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곧 ‘知覺動詞’는 ‘비로소’라는 副詞語에 의해 한정되어야 하고 (4.2. ‘비로소 읽’ 참조), ‘過去’는 ‘非現場性’이라는 用語로 바꾸어야 한다. 우선 非現場性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종래의 記述 중, ‘過去’라 하는 것은 우리의 ‘Tp<Ts’와 일치하는 표현이다. (2.3 참조) 그러나, 우리가 굳이 그것을 過去라 하지 않고 ‘非現場性’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그것이 S<sub>2</sub>의 命題的 內容으로서의 過去, 즉 ‘Te<Ts’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로, 엄밀히 말해서, 대부분의 發話에서, 그 발화의 命題內容에 대한 認知는 發話時보다 앞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Tp<Ts’가 ‘더’가 쓰인 文章만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sup>10)</sup>는 이유에서다.

다음의 例文으로 非現場性을 說明해 보기로 하자.

- (33) a.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참 예쁘더라.  
b. 네가 그때 입은 그 옷 참 예쁘더라.

(33a)는 特定한 話脈을 想定하지 않고서는 자연스러운 발화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반면에 (33b)는 단독으로 쓰여도 자연스러운 發話다. 이러한 차이는 特定한 話脈의 前提가 없는 한 (33a)는 發話現場에서 ‘그 옷의 예쁨’을 알게 된 경우이고, (33b)는 發話現場 밖에서 그 사실을 認知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論議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33a)에 特定한 話脈을 想定하여, 그것의 文法性과 非文法性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 (33a)’ ㄱ. \*치음 보너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참 예쁘더라.  
ㄴ. 그때 보았을 때는,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참 예쁘더라.

위의 (33a)’에서 傍點친 句節들은 ‘그 옷의 예쁨’을 언제 認知했는가

10) 現在時制로 發話되는 命題라 할지라도 그 命題內容에 대한 認知는 發話보다 앞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를 나타내고 있다. (33a)'의 ㄱ에서는 그것이 發話現場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부자연스러운 文章이 되고, ㄴ에서는 發話現場 밖에서 알게 된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文章이 되는 것이다. '더'가 쓰인 文章에서의 이와 같은 認知의 非現場性은 토박이 화자에게는 거의 先驗的인 것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은 例文에서는 특정한 話脈의 前提없이도 그것이 現場 밖에서 認知한 사실에 대해 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34) 그가 지금 이리로 오더냐?

위의 (34)에서 發話現場과 관계 있는 '지금', '이리로'라는 副詞語가 있지만 '더'의 쓰임은 자연스럽다. 이것은 '지금', '이리로'가 한정하는 것이 VP<sub>3</sub>일 뿐이고 VP<sub>2</sub>와는 無關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 4.2. '비로소 앓'

VP<sub>2</sub>의 意味特性 중에 非現場性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비로소 앓'이다. 이 '비로소 앓'은 'Ts→Tp'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Ts와 Tp가 話者의 기억 속에 분명해야 한다는 것에서 생겨난다. 그런데, Ts는 發話時로서 現在이므로 그 分明性이 언제나 보장되지만 Tp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發話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사실에 대한 認知를 前提로 하지만, 이러한 認知는 경우에 따라 話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질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話者가 참조할 認知時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Ts→Tp 현상이 일어날 수 없고, '더'도 당연히 결합될 수 없다.

- (35) a. ?뚫이 아릅답더라.  
b.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더라.

위의 (35a, b)는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話者 자신도 그것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分明하게 기억하지 못한

다. 따라서 話者가 참조할 時點, 곧 認知時가 不分明하여  $T_s \rightarrow T_p$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話者 자신에 관한 일일 때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 (36) a. ?나는 예쁘더라.  
 b. ?나는 학생이더라.  
 c. ?나는 며칠전에 학교에 갔더라.

위의 (36)의 例文들은 종래에 '비동일주어 제약'으로 취급되어 왔던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비동일주어 제약'으로 분류되었던 것 중에 話者의 意圖와는 관계 없는 事件이나 事態를 나타내는 위의 (36)과 같은 文章들은, 앞의 (35)와 동일한 원인에서 생겨나는 制約일 뿐, 人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즉 (36a, b)는 話者의 상태, 또는 신분을 나타내는 말로서 어느 特定時에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36a, b)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話者의 속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36a)는 이점이 主觀性動詞文과 비교가 된다. 主觀性動詞文일 경우 비교적 짧은 時間 동안의 話者의 心理狀態를 나타내므로, 그 사실을 기억하는 한, 認知時點이 분명하게 느껴질 것이다. 한편 (36c)의 경우는 (36a, b)와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생겨나는 制約이긴 하지만 그 說明이 간단하지만은 않다. 話者가 (36c)의 내용을 認知한 것은 특별한 理由가 없는 한, 며칠전에 등교할 때의 어느 한 時點이 될 것이다. 이때는 事件時와 認知時가 일치함으로 認知時 基準의 現在로 표현해야 한다.

(36c)' \*나는 며칠전에 학교에 가더라.

(36c)'가 자연스럽게 못함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대로 話者의 意圖 때문이다. (36c)에 대해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로 자신이 며칠전에 학교 갔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가 다시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는 (36c)는 자연스러운 발화가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 즉 불과 며칠전에 학교 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므로 (36c)가 단독으로 발화된다면 부자연스러운 發話로 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認知時點이 분명한 事件이나 事態에만 ‘더’가 統合됨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認知時點이 분명성이 어떠한 意味를 갖는가에 대해 論할 차례인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表題에 제시한 대로 ‘비로소 알게 되었다’<sup>11)</sup>는 것을 意味한다. 즉 認知時라는 것은 지금 알고 있는 狀態가 비릇된 時點을 말하며, 認知時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은 그러한 비릇된 時點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어떤 점이 비릇된 時點은 일반적으로 發話時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話者의 記憶에서 不分明해진다. 따라서 ‘더’가 쓰인 文章으로 전달하고 있는 情報은 話者가 비교적 發話時에서 가까운 時點에서 認知한 경우가 많게 되고, 이것이 聽衆에게 특징적으로 느껴질 때, 비로소 안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37) ?충무공이 거북선을 만들었더라.

(37)을 發話하는 사람이 成人인 한국인이라면, (37)의 사실은 이미 국민학교 다닐 때 안 것으로 청자에게 기대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37)처럼 發話하므로써 청자에게는 話者가 그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느껴져 부자연스럽게 들리게 된다.

끝으로 (35a)와 (36a)의 制約解消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비로소 알’에 대한 檢證을 해 보기로 하자.

(35a) ‘꽃은 과연 아름답더라.’

(36a) ‘내가 우리반에서 제일 예쁘더라.’

위의 (35a)는 話者가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 어떤 계기에 의해 비로소 실감했다는 意味를 지니고 있으며, (36a)는 급우들과 비교해 본 결

11) 김차관(1980:91)에서 ‘새로 알게 되다’를 ‘더’의 意味로 추가하고 있다. ‘새로’는 筆者의 ‘비로소’에 해당하는 말이다 생각된다.

과 자신이 제일 예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5. 結 論

지금까지의 우리의 論議는 종래의 견해에 대한 批判(2章), VP<sub>1</sub>의 意味特性(3章) VP<sub>2</sub>의 意味特性(4章)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더’의 意味로 주장되었던 回想 및 보고는 ‘더’의 統合에서 생겨나는 制約現象에 대해 아무런 說明力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② ‘더’가 쓰인 文章에서 人稱에 의해 생겨나는 制約은 없으며, 종래 ‘비동일주어 제약’이라고 했던 것은 意味論上的 制約으로, VP<sub>1</sub> 및 VP<sub>2</sub>의 意味特性에 의해 생겨난다.

③ ‘더’가 쓰인 文章의 時制는 認知時를 基準時로 하고 있으며, ‘았’의 統合 여부에 따라, ‘-φ 더-’는 非過去, ‘-았더-’는 過去를 나타낸다.

④ VP<sub>1</sub>에 대해서는 客觀的 傳達이라는 말로써 記述할 수가 있다. 客觀이라는 意味는 基準時點의 移動(Ts→Tp)에 의해 생겨난다.

⑤ 客觀的 傳達의 前提條件으로서는 傳達되는 情報가 話者의 意圖와는 상관없는 無意圖的(non-volition)인 것이어야 한다. 소위 ‘비동일주어 제약’중 動作動詞文일 경우 이 ‘無意圖’라는 意味資質로서 설명할 수 있다.

⑥ VP<sub>2</sub>에 대해서는 ‘現場 밖에서 비로소 알았다’로 記述할 수 있다. 이때 非現場性과 비로소 앞은 ‘Ts→Tp’의 前提條件이 된다. 그리고 ‘비동일주어 제약’중 狀態動詞, 敘述格動詞 및 ‘았’이 統合된 文章일 경우, 그 制約의 原因은 人稱 때문이 아니고 ‘비로소 앞’이라는 意味資質 때문이 생겨나는 것이다.

⑦ 이상에서 언급한 ‘더’의 意味를 文章化 하면 다음과 같다.

‘더’는 話者의 意圖와는 관계없는 無意圖的인 사실을 發話現場 밖에서 비로소 認知하여, 그것을 客觀的으로 傳達한다는 意味를 지닌다.

‘더’에 의미에 대한 以上과 같은 結論은 물론 잠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의 論議가 終結法 및 引用法에만 局限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非終結語尾와 함께 나타나는 ‘더’의 意味가 穿鑿되고, 또 通時的 研究가 先行될 때 보다 확실한 結論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高永根(1965): “現代國語의 叙法體系에 대한 研究”, 國語研究 15.
- 高永根(1971): “國語叙實法에 나타나는 「話式」의 範疇에 대하여”, 金亨奎博士頌壽記念論叢
- 김영희(1981): “회상문의 인칭제약과 책임성”, 國語學 10.
- 김차균(1980): “국어시제 형태소의 의미”, 한글 169.
- 나진석(1971): 「우리말의 때때김 연구」, 과학사.
- 南基心(1978): 「國語文法の 時制問題에 관한 研究」, 塔出版社
- 서정수(1977): “‘더’는 회상의 기능을 가지는가?” 언어 2-1
- 성낙수(1975): “한국어 회상문 연구”, 문법연구 2
- 최현배(1937, 1977): 「우리말본」, 정음사.
- 허 옹(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 Chang Suk-Jin (1973);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Language Research 9-2.
- G.J. Ramstedt (1939); 「A Korean Grammar」, Société Finno Ougrienne, Helsinki.
- J. Lyons (1977); Semantics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hn Ho-Min (1975); “Retrospection in Korean” Language Research 11-1.